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1

1. (가)~(다)의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도덕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도덕적 언어의 분석에 주력한다.
(나)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루어 윤리적 행위의 기준을 제공한다.
(다)	다양한 도덕 이론을 환경, 생명, 정보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 ① (가)는 도덕적 개념의 의미를 명료화하려 한다.  
 ② (가)는 윤리적 논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나)는 현실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④ (다)는 의학, 과학 등 관련 학문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⑤ (다)는 도덕 현상의 객관적 서술을 윤리학의 본질로 본다.

2. 그림의 ㉠, ㉡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유학에서 말하는 백성을 다스리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 은/는 백성을 보살피라는 하늘의 명(命)을 받은 사람으로, 백성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정치(治)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주체도 있습니까?

네. ㉡ 은/는 봉공(奉公)의 정신으로 백성들을 보살피라는 ㉠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 < 보 기 >
- ㄱ. ㉠: 백성을 통치의 주체로 존중한다.  
 ㄴ. ㉠: 수기(修己)에 기반하여 백성을 다스린다.  
 ㄷ. ㉡: 충(忠)의 자세로 백성을 대한다.  
 ㄹ. ㉡: 공적 이익을 위해 육체 노동에 종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밑줄 친 ‘나’에 대해 가장 적절한 평가를 한 학생은?

나의 꿈은 기타리스트이며 학교에서 밴드부 활동도 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형처럼 공무원이 되라고 하신다. 그러나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음악 선생님께서도 나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하셨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여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것이다.

- ① 갑: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유예하고 있다.  
 ② 을: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③ 병: 자신의 진로와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④ 정: 타인이 주입한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⑤ 무: 주체적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하다.

4. 다음에서 강조하는 삶의 자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저들이 부유함을 내세운다면 나는 인(仁)을 내세울 것이며, 저들이 벼슬을 내세운다면 나는 의(義)를 내세우리라.  
 ○ 너희들은 내가 검(劍)을 나누어 주는 뜻을 알겠느냐? 모름지기 이 검으로 의(義)와 이(利)의 관계를 배어 끊어서 의를 취하고 이를 버려야 하느니라.

< 보 기 >

- ㄱ. 유용성보다 대의명분을 더 중시한다.  
 ㄴ. 관직을 멀리하고 탈세속적 삶을 추구한다.  
 ㄷ. 인격 수양을 통해 사회에 올바른을 실현한다.  
 ㄹ. 부와 권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의리 정신을 실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다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람은 물을 뜨면서 그 물을 ‘잘(jal)’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은 ‘파니(pani)’라고 부르며, 또 다른 사람은 ‘워터(water)’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해서 ‘잘’, ‘파니’ 그리고 ‘워터’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다. 종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실재도 이와 같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결국은 하나임에 틀림없다.

- ① 종교는 합리성과 객관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② 종교는 동일한 도덕규범과 의례를 갖고 있다.  
 ③ 종교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가지고 있다.  
 ④ 종교는 서로 간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  
 ⑤ 종교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6. (가) 사상가의 관점에서 (나)의 ㉠, ㉡의 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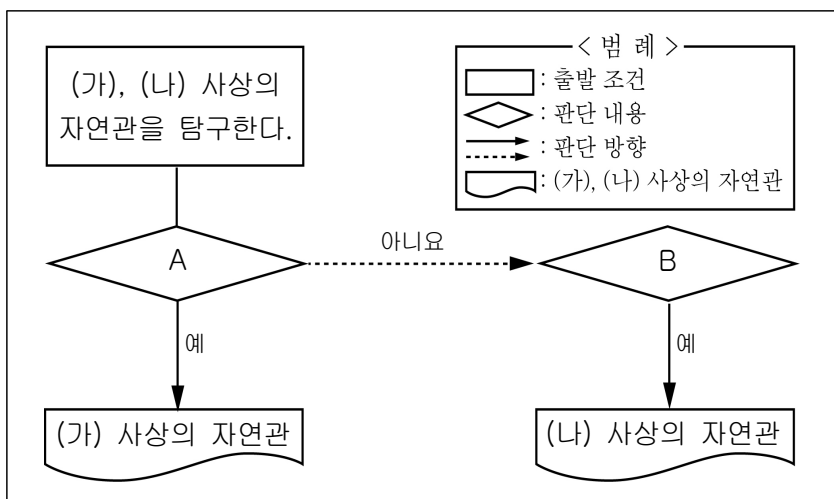
(가)	자신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결코 한갓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는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고심한 끝에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 <u>자신의 장기를 팔았다.</u></li> <li>○ B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 <u>자신의 몸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u></li> </ul>

- ① ㉠은 선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도덕적이다.  
 ② ㉠은 타인의 생명 연장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도덕적이다.  
 ③ ㉡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도덕적이다.  
 ④ ㉡은 사회의 도덕규범과 관습에 위배되므로 도덕적이지 않다.  
 ⑤ ㉠과 ㉡은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하였으므로 도덕적이지 않다.

7. (가), (나) 사상의 자연관을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지와 나는 함께 생기고 만물은 나와 하나가 된다.</li> <li>○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질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li> </ul>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인 자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신적 존재이다.</li> <li>○ 우리는 자연에 대해 명확하게 압으로써 자연의 주인이 될 수 있다.</li> </ul>



- ㄱ. A: 인간과 자연은 전일적(全一的) 관계를 이루는가?  
 ㄴ. A: 자연은 아무런 질서가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인가?  
 ㄷ. B: 자연은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 유기체인가?  
 ㄹ. B: 인간은 자연과 달리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 ㉡은 전통 의례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은/는 두 성(姓)을 합하여 위로는 조상을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기 위한 것이다. 납채(納采)로부터 우귀(于歸)에 이르는 절차를 거친다.  
 ○ ㉡은/는 좋은 날을 골라 빈(賓)을 모시고 하는 의례이다. 상투를 틀고 갓을 씌우고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이름인 자(字)를 부여하는 것으로 마친다.

- ① ㉠에는 서로 간의 의리와 책임을 일깨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② ㉠의 본질은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③ ㉡은 삶의 과정에서 거치는 마지막 통과 의례이다.  
 ④ ㉡은 능력 있는 자를 관리로 추천하기 위한 의례이다.  
 ⑤ 전통 사회에서는 ㉠을 치른 사람만이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가에 있다.  
 을: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나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 ① 기술은 과학적 사고를 불가능하게 한다.  
 ② 인간은 얼마든지 기술을 제어할 수 있다.  
 ③ 기술은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④ 기술의 본질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필요하다.  
 ⑤ 기술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10. 전통적 가족 관계 A, B에 대한 유학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을 주고받음으로써 생겨난 관계이다.</li> <li>○ 수직적 관계이며, 자연스런 친애의 정신이 강조된다.</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래 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나 마음대로 끊을 수 없다.</li> <li>○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 관계의 성격을 지닌다.</li> </ul>

&lt; 보 기 &gt;

- ㄱ. A에서 중시되는 친애[親]는 호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ㄴ. B에서 강조되는 우애는 효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ㄷ. A, B에는 각각 경쟁과 협력의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ㄹ. A에서 요구되는 효와 B에서 요구되는 제(悌)는 인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3

11.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무명(無明)에 가려진 중생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왜 그러한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을: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도(道)를 따르기 때문에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 달처럼 찼다 기울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 ① 죽음은 삶과 같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인가?
- ② 자신이 지은 행위[業]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가?
- ③ 육체로부터 해방된 죽음 이후에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 ④ 죽음은 고통이므로 죽지 않는 신선(神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 ⑤ 삶과 죽음에는 차별이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12. 다음에서 강조하는 언론에 대한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를 설정할 때, 언론의 표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에 따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또한 그 표현이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두어야 한다.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사적인 사안에 관한 경우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 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 ② 언론은 시민의 사적인 권리 보장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 ③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만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④ 언론 보도는 공적인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 ⑤ 언론의 자유는 인격권과 양립할 수 없다.

13.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수양 방법으로 옳은 것은? [3점]

-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하여 사물의 무수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하늘이 명령한 것이 곧 성(性)이다. 이것은 본래 선한 것이 성이며, 성은 곧 이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 ① 본성을 선하게 바꾸기 위해 극기복례(克己復禮)에 힘쓴다.
- ② 연기(緣起)의 법칙을 깨달아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난다.
- ③ 소요(逍遙)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마음을 비운다.
- ④ 인위(人爲) 규범을 멀리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른다.
- ⑤ 예법(禮法)을 준수하여 내면의 덕성을 함양한다.

14. 갑, 을, 병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각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며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을: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때 실현될 수 있다.  
병: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붕괴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①	갑이 을에게	업적에 따른 분배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②	갑이 병에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③	을이 갑에게	국가에 의한 재분배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④	을이 병에게	개인의 능력이 사회적 산물임을 모르고 있다.
⑤	병이 갑에게	생산의 효율성보다 분배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15.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 [수행 평가]

◎ 문제: 갑, 을 사상가들의 예술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시인들의 창작 활동을 감시하여 좋은 성품의 상(像)을 자신들의 시 속에 새겨 넣도록 강요해야 한다.  
을: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다운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학생 답안

갑은 ㉠ 예술이 덕(德)을 함양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며, ㉡ 예술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반면 을은 ㉢ 예술이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한다고 보며, ㉣ 예술이 오직 미를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갑은 을에 비해 ㉤ 예술이 올바른 사회 구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가), (나)의 직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비록 농사꾼이나 장사치의 자식이 조정(朝廷)에 나아가 나랏일을 맡더라도 분수에 넘칠 것이 없고, 재능과 학식이 없다면 고관(高官)의 자식이 하인의 일을 할지라도 한탄할 것이 없다.
- (나) 신은 여러 가지 삶의 양식들을 구분하여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셨다. 각자가 하는 모든 일은 신이 정해 주신 소명(召命)임을 알아야 한다.

- ① (가)는 신분에 따라 직업이 정해지는 것을 비판한다.  
 ② (가)는 직업을 속죄의 의미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나)는 직업이 출세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④ (나)는 직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⑤ (가), (나)는 모두 주어진 직업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17. 갑, 을은 긍정, 병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생물과 무생물이 어우러져 있는 대지에도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 을: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했던 생명체의 경외(敬畏)를 살리고 하는 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 병: 쾌고(快苦) 감수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이익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이익관심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① 생명체들 간의 위계질서를 인정해야 하는가?  
 ②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를 우선시해야 하는가?  
 ③ 오직 인간을 위해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가?  
 ④ 감정을 지닌 존재를 도덕 공동체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⑤ 생태계 내의 모든 생명체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18. 그림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국제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국제 정치의 안정은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정치의 힘을 위한 투쟁일 뿐입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제 국가들에 의해 국제 연맹이 결성되고, 그 연맹이 확장된다면 국제 평화도 이룩될 수 있습니다.

을



- ① 갑: 국제 관계에서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② 갑: 국가의 도덕성에 의해 국가의 생존이 결정된다.  
 ③ 을: 강대국들이 국제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  
 ④ 을: 국가들의 협력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⑤ 갑, 을: 국가만이 국제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9. (가)에 비해 (나)의 입장에서 더 지지할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기업인들에게 주주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 자유주의 사회의 근간이 근본적으로 허물어지게 된다.
(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장기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 보 기 >

- ㄱ. 기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에 있다.  
 ㄴ. 기업의 활동은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  
 ㄷ. 기업의 이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ㄹ.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 (나)의 주장이 올바르게 적용된 예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업적보다는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필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나)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힌 사람의 이익을 삭감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 보 기 >

- 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해 준다.  
 ㄴ. 판매 실적에 따라 영업 사원에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ㄷ. 수행 평가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 점수를 동등하게 부여한다.  
 ㄹ.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 |   | (가) | (나) |   | (가) | (나) |
|---|-----|-----|---|-----|-----|
| ① | ㄱ   | ㄴ   | ② | ㄱ   | ㄷ   |
| ③ | ㄴ   | ㄷ   | ④ | ㄴ   | ㄹ   |
| ⑤ | ㄷ   | ㄱ   |   |     |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